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사랑스런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97-104)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97절)라고 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 5가지

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98-100절)

성경은 학식을 자랑하는 스승보다 지혜롭고, 세상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 들어있고, 금보다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더욱 통찰력 있게 하고, 더욱 명철하게 합니다.

②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101절)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며 그 길로 인도합니다.

③ 하나님은 스승이 되시므로(102절)

시인은 성경을 연구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④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103절)

말씀은 심령을 기쁘게 하며 동시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생활을 복되게 합니다.

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됨으로(104절)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쓰리고 어둡고 추한 날을 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했고(97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104절)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모르면 선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2.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생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97절).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그 대상에게 점령되는 법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접촉하지 않고 온 인격을 기울여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함께 하기를 힘쓰고, 늘 읊조리고 묵상하며 지키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성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하여 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읽기도 귀찮아한다면 죄로부터 또한 추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God's lovely words (Psalms 119:97-104)

The psalmist who loves God's word confesses to himself in verse 97, "Oh, how I love your law."

1. Five reasons to love God's law

(1) Because God's w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inherited from heaven (vv. 98-100).

The Bible is wiser than teachers who are proud of their knowledge, and wiser than old men taught by worldly experience. There are mysteries on how to defeat enemies, and wisdom more precious than gold in God's word. The Lord's commands, His testimonies, and His law make us wiser, more penetrating, and more intelligent.

(2) Because God's word leads us to the righteous path (v. 101).

God's word helps us avoid the evil path. God's law demonstrates the right path and leads us to it.

(3) Because God is our teacher (v. 102).

Whenever the psalmist studies the Bible, he does not listen to men's voice but God's voice which is found in His word written by revelation.

(4) Because God's word is sweeter than honey (v. 103).

God's word makes our hearts happy, when it blesses those who keep His word in their lives.

(5) Because we grow to hate every wrong path we take through God's word (v.104).

Christian life is not always happy. The more we experience happy and beautiful lives, the more we also experience bitter, dark, and unhappy days. Nevertheless, Christians should live in God's word. The psalmist says, "Oh, I love your law" (97), "He hates every wrong path" (v.104). If we cannot distinguish 'good' from 'evil', we cannot learn the meaning of 'goodness.' The fact that we hate the wrong path verifies that we love God.

2. The lives of Christians who love God's word

Christians must continually meditate on God's word in as much as they love His word (v. 97). It is no wonder that the lover's heart is seized by the one loved.

Faithful Christians do not only come into contact with God's word theoretically but also relate to it with their whole person. They always try to be with it, recite it, meditate on it, and keep it as His word.

My beloved Christians!

How concerned are you with the Bible? If you are not very fascinated with the Bible, and are negligent in reading it, you will not prevent the attacks from the sins and impurity of the world. By reading, studying, learning, and meditating on God's word, I earnestly pray that we will all become God's people who build our house on the firm foundation of God's w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농어촌 교회 목회자 초청

내일 오전11시-오후3시 / 웨스트민스터 홀

우리교회는 매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벌이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돕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올해는 59개 교회에 매월 2천4십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어촌 교회를 지키며 전도와 말씀선포를 계속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위원장 홍성주 장로)는 우리교회에서 후원하는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내일(8월3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초청의 시간을 갖는다. 전도위원회는 농어촌100교회운동을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초청하여 이종윤 목사의 특강후, 선교보고와 후원교회 목회

자와의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또한 초청된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은 우리교회가 지하3층에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나 현재 나눔의 집에는 성도들의 기증품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성도 가정에서는 나눔의 집에 의류 등의 물품을 기증해 주기 바란다. 기증받는 물품은 의류, 서적, 성경책 등이다. 기증을 원하는 성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기증하면 된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농어촌100교회운동에 참여하여 고향을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파송예정 선교사 오늘부터 목회동역 시작

금년 11월 22일(주) 파송예정 선교사들이 오늘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목회동역을 시작한다. 선교사들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심방과 교회 내의 각 교회학교와 기관들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서울교회 가족 됨을 확인하고 성도

들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 동역자들을 얻는다. 파송예정 선교사는 김인서/현혜옥(아르헨티나), 객찬희/유주희(동아시아),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신원석/강윤자(베트남) 등 10명이다.

홈페이지 신규 서비스 안내

서울교회 멀티미디어단(단장 : 오정수 장로)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MP3 다운로드 서비스]와 [e주보]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주일 2부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일예배의 설교 말씀이 MP3로 제작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은 MP3 파일은 재생이 가능한 휴대용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청취가 가능하다. 또한 매주 발행되는 주보가 순례자와 같이

디지털 출판되어 홈페이지 내 e순례자/주보 메뉴를 통해서 서비스 된다.

주보는 확대, 축소, 페이지 넘김 등 다양한 기능으로 시력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이며 교회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과 새신자 전도용으로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교회 홈페이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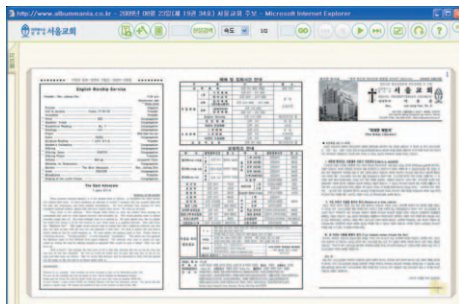
2부주일예배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Paul's prayer for the saints

일교할 : 2009-09-23 | 본문 : 에베소서 1:15-19 | 설교자 : 이종훈 목사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Paul's Prayer for the saints (8:15-19)는 믿음의 모든 것을 개화시키려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앞서서도 우리에게 기도와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시...

일교할	본문	설교자	MP3	주보
2009-09-23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15-19	이종훈 목사	○
2009-09-16	위대한 배설기	요한복음 8:31-36	이종훈 목사	○
2009-09-09	목회 상담원칙	디모데후서 2:14-17	이종훈 목사	○
2009-09-02	신앙의 맥	에베소서 1:3-14	이종훈 목사	○
2009-07-26	회개하는 이해의 소망	요새야 2:2-16	이종훈 목사	○
2009-07-19	아름답고 대담한 증거	요한서 4:1-6	이종훈 목사	○
2009-07-12	잃어버린 한테를의 간성	창세기 32:1-10	이종훈 목사	○
2009-07-05	모순의 사랑과 불	사도행전 21-4	이종훈 목사	○
2009-06-28	후회없는 영적 성장	에베소서 4:10-20	이종훈 목사	○
2009-06-21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에베소서 4:1-16	이종훈 목사	○



2009년 성경암송대회

범위: 로마서 1-5장
10월18일(주) -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3일(금) - 본선

2009년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회의 범위는 로마서 1장-5장까지이며 10월18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3일(금)에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성경말씀을 암송하며 본인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09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지난 주 우리 교회는...

- ① 2부예배 후 만나 홀에서 열린 목사님 생신 축하
- ② 모곡을 방문하여 우리교회 2부예배에 참석한 프랑스 입양아와 부모

손 소독제 비치

성도 간에 악수의 교제가 빈번한 교회는 최근 신종 플루(Flu) 예방차원에서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교회 1층 양쪽 출입구, 2층 출입구, 8층 만나홀 입구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다.

다락방 개학한다

무더운 여름 8월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갔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다시 개학된다.

교구장, 교구간사, 다락방장들은 그동안 축적된 영적 힘을 쏟아 다락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2009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 중

8월31일(월)부터 개강하는 2009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신청서가 지난 주 주보에 삽지로 넣어졌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열린 프로그램에 한 과목 이상 신청하여 수강하기 바란다. 또한 이웃에 대한 전도의 기회로도 삼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등록비는 한 과목당 10,000원이다.

태신자 품기 운동에 나도 참여 합시다

우리교회는 계속적으로 '태신자 품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주변의 믿지 않는 이들을 태신자로 작성하고 기도도 양육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란다.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편지를 보내드리고 있다.

아가페타운 봉사자 줄이어

아가페타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도들의 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월24일(월)에는 70인전도대 목욕축호팀(곽태순 김양숙 정정숙 김은순 최성희 이소연 김애순 최금봉)이 27일(목)에는 이복형 하영숙, 부목사이규정 서명철 노현상 황광 박종민 문정훈)가 봉사에 참여했으며 이번 주에는 9월 1일(화)에 70인전도대 박정임 정미연 윤현미 김옥순 정기자 3일(목)에 루디아 여전도회, 시온찬양대 5일(토)에 제1스데반회가 봉사에 참여한다.

목회자 세미나 · 열린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거룩의 길을 한걸음 더 가까이

김재진목사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부원장)

금년 들어 우리 서울교회는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장로교의 날 행사’, 그리고 ‘한국장로교 지도자간담회’를 당회장 이종윤 목사님의 지도 아래 주관하였다. 이상의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면서 위임목사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개혁교회 연합이라는 과제를 의식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분열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양 팔이 좌우로 벌려지고 두 다리가 뒤틀린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의 몸이 사방으로 찢기고 온몸에서는 오열이 돌아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 개혁 이래로 전 세계의 개혁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찢길 대로 찢겨진 광야의 성막과 같이 되었다. 특별히 ‘교회 연

합’을 당위론적 차원에서는 모두 긍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한 발자국도 양보하려하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속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롬 7:15)는 절규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롬 7:20)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연상되었다.

이에 한국기독교문화 진흥원(한국교회 갱신연구원), 당신의 몸 되신 교회가 머릿돌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내 딛기 힘든 발자국을 앞으로 고감히 떼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을 강사로 모시어 각 교파 신학과 신앙의 특성을 서로 듣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서로 다른지”를 먼저 이해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다음 서로 다른 신

앙적 혹은 신학적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수용하면 일단은 ‘신앙과 신학이 달라서’라고 교회 연합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교파에서 기꺼이 자기 교단의 신앙의 특성과 신학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서울교회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의 선한 뜻을 기뻐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린다.



황 광 목사 (교육위원회 지도)

제26학기 서울성경대학이(8/31,월) 사도행전반을 시작으로 10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 성경대학은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복음적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중에는 성경과목으로 사도행전, 에스겔, 여호수아, 데살로니가 전 후서반이, 주중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영어성경공부반, 수화교실 기초반이 개설됩니다. 또 주일날 교사 양성반에 참여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중교사양

성반(금)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 전도학교, 결혼예비학교, 서울음악교실이 개설되게 되며 주부대학, 샬롬경로대학, 선교대학, 유아부 학부모를 위한 마리아학교가 주중에 개설됩니다.

주중에 개설되는 성경대학반은 새벽, 오전, 저녁 시간에 각각 개설되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개설되는 강좌들도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나 교구일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양

성반에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꼭 한 과목 이상 이수하시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명철 목사(샬롬경로대학 지도)

태어나서 20대까지의 교육기를 제1기 인생, 30대에서 50대까지의 직장생활기를 제2기 인생이라고

한다면, 퇴직 이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를 제3기 인생이라고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라스렛(Peter Laslett)은 구분하였습니다. 제3기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은 자기성취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제3기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3기 인생 대학, 즉 경로대학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45년 해방 당시 남자가 46세, 여자가 51세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현재 남자가 75세, 여자가 82세가 되었으며, 2020년이면 남자가 78세, 여자가 85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대학의 중요

성은 날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9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01호에서 진행되는 제19학기 샬롬경로대학 개강을 앞두고 교사들은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교시(10:20~11:00) 찬양 및 경건회, 2교시(11:00~12:00) 교양강좌, 3교시(12:00~13:00) 점심 및 친교, 4교시(13:00~14:00) 특별활동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교양강좌로 특별히 각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초빙되어 노인복지정책, 노년의 여가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특강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활동으로 컴퓨터, 찬양, 체조반도 운영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정병무 장로 (주부대학 부장)

우리는 하나같이 입에 붙은 말로 거룩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찾으며 서성거리고 있는지, 자문자답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을 한시도 떠나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세 전 주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 영적 거룩한 무리의 반열에 세워 주시고, 그 한 없는 사랑과 긍휼로 구원의 감격을 안겨 주셨으니,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시려는 여

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삼가 초청을 드립니다.

우리교회에서 금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으로 개설되는 주부대학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통하여 문화 기독교화에 앞장 서심으로 육신적 거룩함을 덧입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천국잔치 상에는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접목을 위한 특강과, 꼭 주부가 알아야할 상식으로서 미생물학 개론을,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이론과 실제로 스키프레칭,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이 있으며, 기독교적 정서와 교양을 위하여 효과적 독서, 영화감상 클래식 음악 감상법을 함께 나누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며, 야외수업을

통하여 현장체험을 함으로, 가정의 건강 지킴이의 본분에 더욱 충실한 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영육이 더불어 성화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거룩한 낭비를 하시어 거룩의 길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신종 플루(Flu) - 알고 예방합시다!

민호영 집사(1교구, 내과전문의)

1. 신종 플루 :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 2. 증상 : 발열(37.8도)과 함께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3. 감기와 구별되는 증상은?

증상	감기(COLD)	신종 플루(Flu)
열	열은 며칠간 천천히 드물게 나타남	열은 보통 80%정도에서 나타남, 37.8도 이상이 3~4일 지속되는 경우 의심됨
기침	콧물 기침이 종종 나타남	보통 콧물 없이 기침만 발생 (건기침)
몸살	가벼운 몸살이 약간 나타날 수 있음	매우 심한 몸살이 나타남
코막힘	코막힘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보통 일주일내에 치유	코 막힘은 잘 나타나지 않음
오한	오한은 드물게 나타남	환자의 60%는 오한을 겪음
피로감	가볍거나 보통 정도	보통~심함
재채기	재채기는 보통 나타남	재채기가 잘 안나타남
발병증상	머칠간에 걸쳐 발병하는 경향이 있음	3~6시간내에 빠르게 발병하면서 고열, 몸살과 같은 급작스런 증상을 보임
두통	두통은 드물게 나타남	환자의 80%는 두통을 수반함
편도선	편도선은 일반적으로 나타남	편도선은 잘 나타나지 않음
흉부불쾌감	가볍거나 보통 정도의 불쾌감	중증 심한 경우가 있음

4. 경과 : 고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며 근육통, 몸살증상이 하루이틀 사이에 심해지고 인후통, 설사, 심하면 고열, 두통, 더 악화시 폐렴, 폐부종 등으로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5. 잠복기 : 7일 ~ 10일
6. 검사 방법 : 가까운 거점병원, 병원에 가서 진료 후 바이러스 검사 (비용 : 4만원, 검사 기간 : 15분)
거점병원 : 강남 세브란스, 서울 의료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권성순 성도(5교구)의 독창으로 드러진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국립음대 대학원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학위를 취득하였다. 슈만국제콩쿨에서 입상하였으며 오페라 주역으로 수십차례 활약하였다. 현재 한국 교원대, 수원대, 강남대, 상명대학등에 출강중이다. 오늘은 '알렐루야 (W.A.Mozart)' 외에 2곡으로 찬양드리며 반주는 김복희 집사(임마누엘찬양대 피아니스트)가 담당한다.

신종플루 예방 수칙

1.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2. 발열과 기침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으로 갑니다.
 3. 미리 병원에 알리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4. 만성질환자와 노약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입산부는 거점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6. 어린이는 열이 심하면 보건소로 갑니다.
 7. 증세가 있는 학생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8. 손이나 휴지로 가리고 재채기하고 사용한 화장지는 바로 버립니다.
 9. 골고루 영양섭취, 수분 섭취해야 합니다
 10.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 ※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23사단 진중세례식

23사단 진중세례식이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9월5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당일 오전 7시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

동정

- 수상 : 박세영성도(청년부, 임마누엘) 제 18회 성경전국음악콩쿠르 성악부문 전체 1위, 최우수상
- 개업 : (14교구) 신미선 집사, 다사리아 닭꼬치집(개포5단지 상가) T. 016-334-2726
- 이사 : 김중윤 집사 이종돌 권사 가정 서초구 방배동 528-55 T. 585-0688
- 주간식당봉사 : 제1스데반회(8월 30일) 제2스데반회(9월6일)
- 금주의 식사 : 임상헌 장로 서희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30분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천국시민양성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

강영모 선생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2008년에 창단된 무지개 합창단은 그간 교회에서 수차례 발표회도 갖고, 로잔국제지도자대회에서 연주를 하는 등 참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6월 무지개 합창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전국소년소녀합창제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헨델의 수상음악을 합창음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였는데 트럼펫이 협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 예비학생(초등5)을 객원으로 초빙하여 단원들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트럼펫은 2층의 발코니에서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극장측의 지나친 규제로 애초의 멋진 계획이 실 연주상황에서는 트럼펫 주자가 입장도 못하게 된 어이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으로 저는 관리자에게 화를 내고, 책임을 따지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려 안절부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우리 단원들이 트럼펫 주자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린 트럼펫 주자의 어머니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착한 아이들은 처음 본다고 하며 서울교회 어린이들은 모두가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람 불 때 알아본다는 말처럼 선생인 저는 화만 내고 있을 때 어린 단원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참으로 부끄러웠지만 한편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경험은 제 마음에 점점 더 큰 감동으로 자리 잡으며 어린이 합창에 비전을 가진 지휘자인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술도 기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들 노래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많이 담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3. 새로 열리는 다락방마다 은혜 충만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